성인남성 흡연율 줄고 비만율 늘었다

20년간 흡연율 절반 감소 · 비만율 42.8% 급증

성인여성 차이 없어…나트륨 섭취량 29% 감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66.3%에서 36.7%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비만율은 25.1%에서 4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인여성은 흡연율과 비만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진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성인남성의 현재흡연율은 2018년 36.7%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도입한 1998년 66.3%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만 유병률은 성인남성이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성인여성은 같은 기간 26.2%에서 25.5%로 별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유병률이 남성이 32.4%에서 33.2%로 비슷했지만, 여성은 26.8%에서 23.1%로 소폭 감소했다. 또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일평균 지방 섭취량은 1998년 40.1g에서 2018년에는 49.5g으로 9.4g 늘었다. 같은 기간 일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586밀리그램(㎎)에서 3244㎎으로 29.2% 줄었다.

가정 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05년 18.5%였으나 2018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직장 실내 및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각각 11.5%, 16.9%였다. 여성들의 음주 행태는 나빠졌다. 월간 폭음률이 2005년 17.2%에서 2018년에는 26.9%로 9.7%포인트 늘었기 때문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 남성과 여성이 각각 7.3%, 8.4%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각각 20.9%, 21.4%로 남성과 여성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이 2005년 10.%에서 2018년 12.9%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도 7.6%에서 7.9%로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1998년 11.1%에서 2018년 28.9%로 증가했다. 최근 1년 내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은 2005년 25.8%였으나 2018년에는 49.8%로 급증했다.

육류 섭취량은 1998년 67.9g에서 2018년 129.8g로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채소류 섭취량은 287.8g에서 248.1g으로 39.7g이나 줄었다. 곡류와 과일류 섭취량도 각각 두 자릿수 감소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1998년 2153킬로칼로리(㎉)에서 2018년에는 230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1729㎉에서 1661㎉로 감소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며 "다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남성 비만율이 크게 증가했고,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사회문화와 산업 변화 등 환경에 따라 건강에 대한 도전과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건강 감시체계를 활용해 현황을 점검하고 중재요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장기간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하고 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자료를 생산하겠다"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오는 12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cdc.go.kr)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www.cdc.go.kr/yhs)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1

철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

철원서만 6마리째 발견…"대대적 멧돼지 수색중"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안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철원 군부대는 지난 16일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으나 미확인 지뢰지대에 있어 안전 확보 후 24일 오후 2시50분쯤 철원군에 신고했다.

같은 날 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했으며, 철원군과 군부대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체를 소독한 후 매몰했다.

이로써 철원군 원남면에서만 6번째 멧돼지 ASF 발병이 확진됐다.

현재까지 확진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15마리로 늘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지난번 설치된 1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군부대에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파도를 뚫고 2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가을 파도를 타고 있다.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5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기어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향후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WTO 농업 협상인 DDA 협상이 더딘 점을 들어 충분한 대책을 내올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트럼프 美 대통령의 트윗 한 줄 때문"이라며 "미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민국 농업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에 "WTO는 망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자청해 특별 대우를 받고있다"며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예산 타령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음을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항상 사대 통상외교의 희생양이었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도 트럼프 트윗 한 줄에 국권을 포기하는 사대 통상외교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1996년 이후 오늘까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가소득은 도시와 60% 차이가 날 정도로 정체됐고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서 생존권 자체가 무너진 현 농업 상황에서 대체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연맹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을 단순히 외교적 거래의 양보 산업 정도로 여기는 통상 관료들이 있는 정부에서 개발도상도국 지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슈 판결

"결혼안해? 3개월 데이트비 줘"

전 여친 폭행 40대男 1심 '집유'

파혼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때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씨(34)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다. 하지만 10월께 헤어지게 되자 A씨와 사귀면서 지출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10시께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의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에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A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같은 날 오후6시께 A씨의 집을 방문한 부동산 중개원이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교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A씨의 답변에 화가나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다"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형벌 제257조2에 따르면 칼, 소주병, 총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에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